

#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생활경험 비교 연구 : 정규학교 중단 후 힘든 점을 중심으로

서정아\* · 권해수\*\* · 정찬석\*\*\*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경험이 두 영역별로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정규학교를 그만둔 뒤 힘든 점'에 대해 집단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개념도 연구법으로 면접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21명, 거리 청소년 10명이다. 분석 결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적 편견, 사회적 관계 단절, 가족 및 친족과의 갈등, 심리·정서적 위축, 사회적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방향성 상실, 사회적 지지 부족을 힘든 점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한 학력 장벽, 직업훈련 시스템 상의 미비점, 진로관련 지원 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거리 청소년은 자신들의 힘든 점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제어 :** 학교중단,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거리 청소년, 힘든 점, 개념도 연구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 PSI 컨설팅(전 한국청소년상담원)

※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귀량 연구보조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I. 서 론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수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약 7만 여명에 달하며 2005년에는 그 수가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55,525명으로 전체 학생 수 7,796,401명의 0.71%를 차지하고 있다(강성국, 2005; 전남일보, 2006년 9월 23일자; 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초·중·고등학교 중단으로 인한 학교중단 청소년<sup>1)</sup>의 수가 2002년 8만6000명에서 2003년 7만4000명, 2004년 7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연간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중단 청소년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서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69.9%에 지나지 않으며 학교중단 청소년은 학교 졸업자에 비해 취업과 임금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경험한다. 많은 연구들은 학교중단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의 보조금 수혜, 이른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The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Research Center, <http://www.edweek.org/dc06>, 2006년 10월 15일 인용).

학교중단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학교중단 청소년을 중단 후 생활에 따라 ‘적응형 청소년(진학형·취업형·취업준비형)’, ‘부적응형 청소년(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이숙영·남상인·이재규, 1997; 이소영, 2000) 또는 ‘정착형 청소년(진학형·취업형·직업훈련형)’, ‘비정착형 청소년(시설수용형·방치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박창남·임성택·전경숙·김성식, 2001).

1) 학교중단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중도탈락자(중도탈락청소년), 자퇴생, 탈학교 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비(非)학생 청소년, 중퇴 청소년, 부등교 청소년, 학업중퇴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이 있다(김찬호, 2005; 조용태·배영태, 2003). 이 중 1990년대 이후에 주로 활용해 온 개념은 가치중립적인 ‘학업중단 청소년’(김찬호, 2005) 개념과 ‘학교밖 청소년’(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개념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정규학교 중단자가 ‘학업’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고(이소영, 2000) ‘학교밖 청소년’ 개념의 경우 유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정규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중단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유형분류는 ‘환경 속의 인간’을 중시하는 생태체계이론을 근간으로 학교중단 청소년의 어려움이 현재 그들이 처한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정규학교 청소년에 비해 학교중단 청소년의 생활 영역<sup>2)</sup>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생활영역의 차이는 곧 생활 경험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중단 청소년 생활 영역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학교중단 청소년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소수의 연구들도 대부분 소수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거나, 학교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김순규, 2004; 조용태·배영태, 2003; Janosz, LeBlac, Boulerice & Tremblay, 1997).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중단 청소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교중단 청소년을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김혜영, 2002; 박창남·임성택·전경숙·김성식, 2001; 이숙영·남상인·이재규, 1997; 이소영, 2000)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연구(김혜영, 2002; 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sup>3)</sup>)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차이를 간과하고 학교중단 청소년을 단일한 영역만으로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중단 청소년 연구는 특정 생활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역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연구대상 또한 상대적으로 표집이 쉬운 대안학교 청소년이나 사회적인

2)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후 생활양식은 학교로 다시 복학하거나 대안학교나 검정고시학원 등에서 검정고시 혹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비행으로 인해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보호관할 중이거나 할 일 없이 배회하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숙영, 1997; 이소영, 2000). 생활영역별 학교중단 청소년 규모에 대한 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정을 제외하고 학교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공식적 생활영역으로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소년원·보호관찰소)’, 비공식적 생활영역으로 ‘거리’ 등으로 볼 수 있다.

3) 학교중단 청소년을 유형별로 살펴본 소수의 연구는 학교중단 청소년을 ‘찢린 아이’와 ‘때려친 아이’로 구분하고 ‘찢린 아이’의 특성을 자이통제기능이 상실된 청소년, 의미 있는 친구, 잘 모르는 교사, 무기력한 부모로, ‘때려친 아이’의 특성을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똑같이 시간을 때우고 있는 청소년, 동조하는 친구, 염려스러운 교사,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모로 보았다(김혜영, 2002). 조병주 등(2004)은 학교중단 청소년을 적극적 청소년과 소극적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가족, 사회, 심리, 경제·친구·기관 영역, 일자리 영역별로 이들이 지각한 어려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침해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소년선호시설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를 위해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거나 일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학교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된 이후의 생활환경에 따라 학교중단 청소년의 생활 실태 또한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형별 비교가 두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방안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이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요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속해 있는 생활영역에 따라 학교중단 청소년이 겪고 있는 경험과 힘든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심층면접 해석에서 올 수 있는 주관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개념도 연구법(Trochim, 1989)을 사용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서울·경기 지역의 노동부 인가 직업전문학교 3곳(서울 2개교, 경기 1개교)을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학교 측에 협조공문과 연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교사들이 직접 청소년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신청자를 받은 후 연구자에게 인적사항과 명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섭외가 이루어졌다. 서울 1개교와 경기 1개교에서 총 21명이 1차 면접<sup>4)</sup>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1명을 제외한

---

4) 집단면접은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본 연구의 연구진 3명과 연구보조원 1명이 2명씩 팀을 이루어 수회 직접 학교, 거리,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2명은 상담을 전공한 박사도 청소년상담 경력이 7년 이상이었으며 1명은 대학원에서 아동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로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이다. 1명

20명이 2차 분류 및 평정작업에 참여하였다.

거리 청소년은 서울소재 청소년쉼터의 활동 중 아웃리치(out-reach)지원 프로그램인 ‘이동쉼터’를 통해 쉼터 선생님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에 대해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은 쉼터 선생님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이렇게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여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총 10명이 1차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연락이 취해지지 않은 2명을 제외한 8명이 2차 분류 및 평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은 7월 10일(월)부터 2006년 7월 14일(금)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 II-1>과 같다.

---

은 사회복지학 석사로 청소년관련 연구 및 상담 경력이 3년 이상이었다. 4명의 연구자가 2명씩 짝을 지어 각 유형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분류 및 평정과정에는 1명의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3명의 연구자가 유형을 나누어 순번을 정해 함께 진행하였다.

<표 II-1> 학교중단 청소년 면접 참여자 기본사항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거리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거리 청소년	
성별	남	20(95.2)	나이	14세	0(0)	2(20.0)
	여	1(4.8)		15세	0(0)	3(30.0)
	계	21(100.0)		16세	3(14.3)	4(40.0)
학교를 그만둔 시기	초등학교 때	1(4.8)		17세	4(19.0)	1(10.0)
	초등학교 졸업 후	1(4.8)		18세	8(38.2)	0(0)
	중1	0(0)		19세	4(19.0)	0(0)
	중2	0(0)		20세	0(0)	0(0)
	중3	2(9.5)		21세	2(9.5)	0(0)
	중학교 졸업 후	2(9.5)		계	21(100.0)	10(100.0)
	고1	7(33.4)		평균	18.0세	15.4세
	고2	4(19.0)				
	고3	4(19.0)				
	계	21(100.0)				
학교를 그만둔 기간	1년 미만	6(28.6)	거주 지역 <sup>5)</sup>	서울특별시	7(33.3)	10(100.0)
	1년 이상·2년 미만	6(28.6)		부산광역시	0(0)	0(0)
	2년 이상·3년 미만	3(14.3)		대구광역시	0(0)	0(0)
	3년 이상·4년 미만	2(9.5)		인천광역시	2(9.5)	0(0)
	4년 이상·5년 미만	0(0)		광주광역시	1(4.8)	0(0)
	5년 이상·6년 미만	0(0)		대전광역시	2(9.5)	0(0)
	6년 이상·7년 미만	2(9.5)		울산광역시	0(4.8)	0(0)
	7년 이상	2(9.5)		경기도	9(42.9)	0(0)
	계	21(100.0)		경상남·북도	0(0)	0(0)
	평균	2.7년		전라남·북도	0(0)	0(0)
		충청남·북도		0(0)	0(0)	
		강원도		0(0)	0(0)	
		제주도		0(0)	0(0)	
		계	21(100.0)	10(100.0)		

## 2. 개념도 연구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보완한 연구법인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5) 조사대상 직업전문학교 2개교는 모두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며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모집대상이 전국단위이므로 거주지역이 서울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 II-2> 개념도 연구법 단계별 내용

단 계	내 용
1) 준비단계	<p>준비단계는 참여자 선정과 브레인스토밍의 주제 및 평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참여자 선정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포함될 경우에 개념적 틀의 해석에 폭넓은 의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연구의 설계와 수행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다양한 집단을 표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집단의 규모가 다양한 의견과 토론,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모든 참여자가 브레인스토밍에서 분류와 평가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단계에 참여하는 경우에 참여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은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의 회기에서 제시할 질문과 평정의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된다. 연구자들은 브레인스토밍에서 제시할 질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고, 평정의 기준은 주로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문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리커트 척도로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p>
2) 문장 모으기 단계	<p>연구참여자와 브레인스토밍의 주제가 정해진 후에는 연구주제의 전체 개념 영역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모으게 된다. 이를 위해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는 데 연구자는 브레인스토밍 회기 동안에 이야기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준다. 연구자는 브레인스토밍 회기에서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참여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비판이 없어야 함을 알려준다. 이론적으로는 문장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너무 많은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 분류, 평정 및 분석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00개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브레인스토밍 회기에서 100개 이상의 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문장수를 줄일 수 있다.</p>
3) 문장 구조화하기: 분류, 평정	<p>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문장은 카드에 인쇄되고, 완성된 카드가 참여자에게 제시된다. 참여자는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카드를 분류하도록 지시 받는다. 분류하는 조건은 첫째, 한 개의 문장이 중복되어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문장이 하나로 분류되어도 안 되며, 반대로 문장의 수만큼 분류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는 이 조건을 따르면서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문장을 분류하고 정해진 척도에 의해 각각의 문장을 평정하게 된다.</p>
4) 문장을 개념도로 표현하는 단계	<p>연구주제와 관련된 개념영역을 설명하는 데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각각의 문장들이 개념도에서 어떻게 분리된 점으로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개념도에서 문장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빈번하게 함께 묶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문장 간의 위치가 떨어질수록 덜 빈번하게 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문장을 합치거나 나누어 군집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연구자들이 합의하여 적절한 군집수를 결정한다. 세 번째는 참여자가 각각의 문장에 대해 평정한 평균값을 점이나 군집을 이용하여 표시한다.</p>

단 계	내 용
5) 개념도의 해석과 활용 단계	개념도는 진술문 목록(the statement list), 군집목록(the cluster list), 문장 분포도(the point map), 군집도(the cluster map), 문장 평정도(the point rating map), 군집 평정도(the cluster rating map)를 이용하여 해석되어진다. 군집도 상에서 가깝게 위치한 군집들은 개념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군집 내 하위 문장들을 분석한 후에 군집에 대한 이름을 정한다. 군집에 대한 이름이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집들이 모여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합의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준비된 개념도를 이용하여 어떻게 계획이나 평가결과를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도의 활용은 연구자의 창조성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 출처: Trochim, W.(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In W. Trochim(Ed). *A Special Issue of Educ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은 참여자들이 직접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만들고 자료를 분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이다(Trochim, 1989). 이 연구방법에 이용되는 의미단어, 즉 문장들은 참여자들에 의해 분류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직접 분류하는 질적자료와 비교할 때, 연구자들의 편견이 줄어들게 된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또한 개념적 틀은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되고, 중요개념과 그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도표와 그림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참여자의 경험을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분석에는 다차원적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적용한다. 개념도 연구법은 준비 단계, 문장 모으기 단계, 문장 구조화 단계, 문장을 개념도로 표현하는 단계, 개념도의 해석과 활용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들의 세부 내용은 <표 II-2>에 나타나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 1) 준비단계

준비단계 이전에 연구자 4명이 여러 차례 모여 논의한 결과 본 연구의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규) 학교를 그만둔 뒤에 힘든 점은?”으로 선정하였다.

## 2) 1차 집단면접: 브레인 스토밍

각 유형별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연구 참여자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학교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직업전문학교에 직접 가서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균 소요시간은 집단별로 2시간 내외이며 21명의 연구참여자들을 7월 20일(목)과 8월 10일(목) 양일 동안 6명, 5명, 5명, 5명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거리 청소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연구 참여자가 직접 해당 청소년과 약속 장소를 잡아 8월 2일(화), 8월 15일(화), 8월 20일(일) 3일 동안 천호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3명, 2명, 5명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생활영역별 청소년을 인터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함께 모여 연구자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 및 내용 등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뷰에 관한 세부진행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1부에서는 인사말과 연구주관 기관 소개와 연구소개, 연구진행 방법, 녹음에 대한 양해,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 시간 동안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가 경계심을 풀고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해 주체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으로 집단 인터뷰 구성원을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여름기간 동안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서 분위기를 풀 후 참가신청서를 나누어 주고 작성토록 하였다. 참가신청서에는 이름과 성별, 나이, 연락처, 거주 지역,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 작성과 관련 해당사항 일체를 연구가 끝나는 대로 전량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sup>6)</sup>

2부에서는 본격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였으며 A4용지에 적힌 브레인스토밍 주제인 “학교를 그만둔 뒤 힘든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인터뷰가 시작될 때 브레인스토밍의 요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참가자에게 “머리에 있는

6) 집단인터뷰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한 선행연구(정찬석, 2005; 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의 지침을 준용하였다.

건 고민 말고 싹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며 말하기”라고 요령을 이야기 해주었다. 자유롭게 인터뷰하되 되도록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으려 하고 이야기 내용이 연구방향과 멀어졌을 경우에만 부드럽게 다시 한 번 연구주제를 상기시켰다. 인터뷰 과정은 전 시간 녹음되었으며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 2차 집단인터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중간 중간에 집단 인터뷰에 소외된 청소년들이 없도록 독려하였다.

1차 집단면접을 통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살펴보면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7월 20일(목)부터 8월 10일(목)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거리 청소년은 8월 2일(화)부터 8월 20일(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다.

### 3) 문항선정

문항 선정을 위해 먼저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4명이 축어록을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 한 내용 중에서 ‘(정규) 학교를 떠나서 어려운 점’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선정하였다. 1차 문항선정 작업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133개 문장, 거리 청소년 74개 문장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정리한 2차 선정 작업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100개 문장, 거리 청소년 72개 문장이 선정되었다. 이 모든 문항 선정절차는 기오르그(Giorgi, 1985)의 ‘질적 분석의 4단계 절차’에 의거하여 충실히 수행되었다. 문항선정 작업은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4일에 걸쳐 연구진 3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 4) 2차 면접: 문장 분류 및 평정

문항선정 작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문장을 “Concept System Software”에 입력한 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생활영역별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다시 찾아갔다.

이들은 각각의 문장을 ‘유사해 보이는 것끼리’ 주머니에 모으는 작업과 ‘각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유사한 것끼리 분류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모든 문장에 대한 범주를 각각 만들지 말 것, 둘째 모든 문장을 하나의 집단으로 모으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정도를 자신의 경

험에 비추어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척도의 중요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그저 그렇다(보통이다), 4=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각자 대략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의견은 'concept system software'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 5) 군집 수 확정 및 군집 명칭 정하기

9월 6일(수)부터 9월 8일(금)까지 사흘간 4명의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동질적인 내용으로 묶여진 최소의 군집수인 개념도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은 군집수가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거리 청소년 19개, 15개인 개념도에서 시작하여 평정 점수와 브리지(bridge) 점수를 고려하면서 군집의 수를 하나씩 줄여가며 적절한 군집 수를 찾는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은 각 유형별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13개, 거리 청소년 8개인 개념도가 본 연구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였다고 합의하였고 이후 각 군집의 하위 문장들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군집명칭을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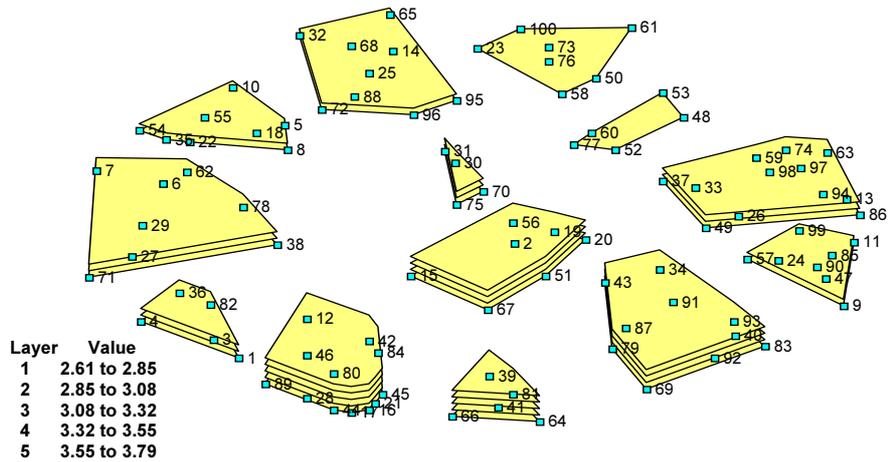
#### 6)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빌 트로침(Bill Trochim)이 Concept System Inc.에서 개념도 연구법을 토대로 개발한 'Concept Systems Program Version 4'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확산되어 있지 않으나 소수의 선구적 연구들을 통해(정찬석, 2005; 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연구에 대한 개념이나 기초적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 Ⅲ. 연구결과

#### 1.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념도는 다음 [그림 Ⅲ-1]와 같다. 이 개념도는 모두 13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에 포함된 문장은 <표 Ⅲ-1>에 제시하였다.



[그림 Ⅲ-1]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한 개념도는 총 13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요도 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중시한 범주는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M=3.79).’였으며 다음으로 ‘3. 직업 훈련체계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M=3.61).’,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M=3.40).’, ‘5. 인간 관계가 단절된다(M=3.32).’,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M=3.19).’ 순이었다. 가장 경시한 범주는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M=2.61).’, ‘12. 부모님

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M=2.81).’이었다. 평균 평정치는 3.17이었다.

<표 III-1>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그룹	문 장	평정치 (평균)
1	범주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3.14
	1.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내 적성과 희망에 맞지 않는다.	1.94
	3.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력이 걸림돌이 된다.	3.83
	4. 학력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된다.	2.94
	36. 자퇴한 것 때문에 회사 면접 볼 때 불리하다.	3.33
	82.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학력을 따진다.	3.67
2	범주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3.23
	6. 친구들도 내가 자퇴한 것을 나쁘게 본다.	2.17
	7.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33
	27. 중퇴했다고 하면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3.50
	29. 돈은 성인과 똑같이 내고 배우는데 월급은 어리다고 적게 준다.	3.89
	38.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	4.00
	62. 어린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	3.72
	71. 학력 쓰라고 하면 주눅 든다.	3.11
78. 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이질감).	3.11	
3	범주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3.61
	12.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	2.72
	16.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한정되어 있다.	3.17
	17. 여자들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좋아하는 전공을 찾기 어렵다.	3.78
	21.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4.22
	28. 기술을 배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3.89
	4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이 공부보다는 졸업장 따는 것에 치중한다.	4.00
	44. 직업전문학교 교육기간(1년)이 짧다.	3.11
	45.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면접에 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다.	3.67
	46.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떨어질까 봐 눈치 지원 한다.	3.22
	80.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다.	4.22
84.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도 중요한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중국집 등).	3.50	
89.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다.	3.78	
4	범주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	3.79
	39.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89
	41. 기술학교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도 기숙사가 없고 집이 멀면 다닐 수 없다.	3.56
	64.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렵다.	4.17
	66. 기술,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4.61
	81. 아르바이트 월급이 밀리거나 떼인 적이 있다.	2.71

그룹	문 장	평정치 (평균)
5	범주 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3.32
	2. 남들 다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2.61
	15. 오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다.	3.67
	19. 빼놓아져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무관심).	3.78
	20.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3.44
	51.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힘들다.	3.44
	56. 친구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것이 부럽다.	2.89
67.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3.44	
6	범주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3.22
	30. 버스기사 아저씨와 실랑이 하는 게 귀찮아 어른 요금 낸다.	4.06
	31. 학교 갈 시간에 버스 타면 '청소년입니다.' 소리 나서 창피하다.	2.22
	70.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더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다.	2.94
75.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	3.67	
7	범주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3.40
	34.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3.33
	40. 내가 하고 싶은 일(예: 댄스, 메이크업, 농사 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	4.00
	43.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3.83
	69. 돈을 벌고 공부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28
	79. 학교를 그만둔 나와 같은 아이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3.17
	83. 할인 혜택 이외에는 청소년증을 쓸 곳이 별로 없다.	4.11
	87.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을 피하려다 엄청 고생했다.	2.06
	91.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인가받기 위해 수용인원을 줄이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내보낸다.	3.33
92. 상담소나 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다.	3.67	
93. 상담소나 교육관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	3.17	
8	범주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3.01
	9.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2.56
	11.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3.17
	24. 건전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곳이 없다(피시방, 노래방, 술집 뿐).	3.39
	47. 미래가 불투명하다.	3.06
	57. 예전에 알던 친구와 할 이야기(공감대)가 없다.	3.44
	85.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맸다.	3.11
	90. 가출해도 갈 곳이 없다.	2.56
	99.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2.78

그룹	문 장	평정치 (평균)
9	범주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3.19
	13. 이것마저 그만두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힘들다.	3.78
	26. 어디에서 진로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3.67
	33.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0
	37. 청소년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4.11
	49. 밖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다.	3.56
	59.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기 어렵다.	3.39
	63. 반항심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안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있다.	3.39
	74.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2.50
	86. 나쁜 짓(예: 아리랑 치기 등)하는 형, 누나와 어울리게 되었다.	2.67
	94. 너무 오래 집에만 있어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2.50
	97.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3.00
98. 사람들의 편견으로 생긴 정신적인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	3.22	
10	범주 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	2.97
	5.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2.56
	8.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본다.	2.17
	10. 친구의 부모님이 자퇴했다고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	2.11
	18. 여자가 학교를 그만두면 더 안 좋게 본다.	3.94
	22. 계속 정규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이 기술 배우라고 한다.	2.22
	35. 학교 그만둔 이유는 알고도 하지 않고, 사고 쳐서 그만두었으려니 한다.	4.11
	54. 사람들은 학교를 그만두면 힘들 거라고만 생각한다.	4.39
55. 학교에 놀러갔는데 선생님과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했다.	2.22	
11	범주 11.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	2.87
	14. 가족이나 친척들이 구박한다.	2.17
	25. 어른들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손가락질 한다.	3.89
	32.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학교 그만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	2.94
	65.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시 정규학교 가라고 하신다.	2.33
	68.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2.44
	72. 자퇴했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3.94
	95. 사회복지사마저도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2.78
	96. 사회에서 자꾸 불량학생으로 몰다보니 자신감이 없어진다.	2.94
88. 문제(예: 돈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심받는다.	2.44	

그룹	문 장	평정치 (평균)
12	범주 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	2.81
	23. 부모님이 학교 안다니니 돈이라도 벌라고 한다.	2.83
	50.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준다.	2.50
	58. 어른들의 태도(알나 힘들. 내가 다 받아줄게 너희들 자켜줄게)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4.00
	61.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2.72
	73. 부모님이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	2.39
	76. 부모님이 내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2.83
	100.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자꾸 싸우신다.	2.39
13	범주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	2.61
	48. 집에 있기 눈치 보인다.	2.78
	52.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정규학교에서 내보낸 선생님이 원망스럽다.	2.28
	53.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2.50
	60.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	3.17
	77. 선생님이 우리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2.33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개념도를 해석<sup>7)</sup>해 보면 개념도는 원형의 둘레를 중심으로 범주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골고루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의 중앙에 두 범주(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원의 중앙에 위치하여 바깥의 다른 범주와 전반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개념도는 크게 11, 12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1분면, 12, 9, 8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2분면, 7, 4, 3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3분면, 2, 1, 10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4분면, 6, 5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5분면으로 나뉘어져서 1분면에서 4분면으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즉, 1분면은 현재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먼 과거에 주로 경험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무시와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며 2분면은 1분면의 결과로 나타난 원망, 목표상실, 방황으로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 3분면은 환경적 제한과 직업훈련체계와 관련된 아쉬움으로 현재의 직업훈련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며 4분면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로 예상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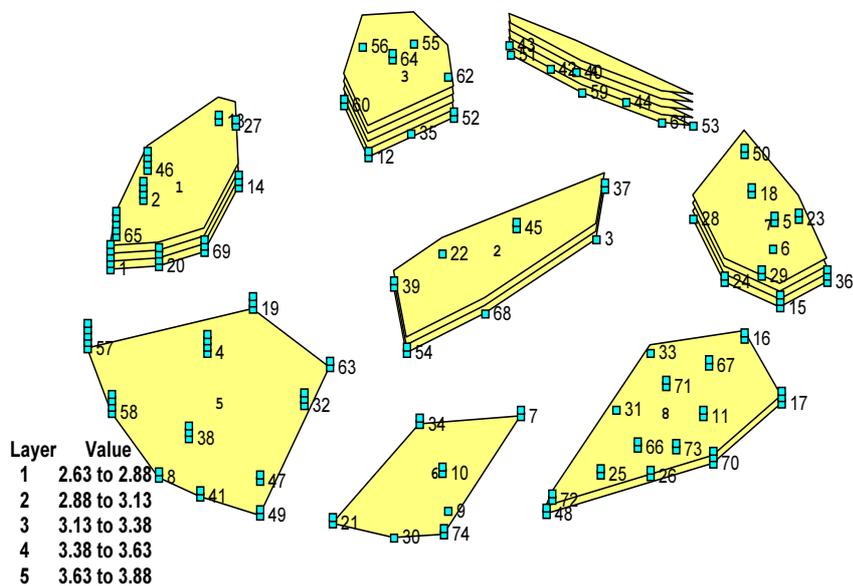
7) 개념도의 유일한 해석 근거는 범주간 근접성이 유사성에 비례한다는 점이다(Trochim, 1989).

진로나 취업상의 한계, 예상되는 차별과 편견의 내용을 포함한다.

## 2. 거리 청소년

거리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념도는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이 개념도는 모두 8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에 포함된 문장은 <표 III-2>에 제시하였다.

거리 청소년의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한 개념도는 총 8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평정치는 3.27이었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에 비해 커다란 어려움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주 3. 학업 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M=3.77)'와 '범주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M=3.88).'를 제외하고는 문제에 대한 지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III-2]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거리 청소년 개념도

<표 III-2> 거리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그 룹	문 장	평정치 (평균)
1	범주 1. 놀고 싶지만 학교도 가야할 것 같아서 갈등이다.	3.52
	1. 학교 다니기가 싫어진다.	2.38
	2. 계속 막 놀고 싶다.	3.38
	13.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다.	3.63
	14.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 질까봐 걱정이다.	4.00
	20. 그냥 귀찮다.	3.38
	27. 부모님께 미안하다.	4.75
	46. 집에 있으면 자꾸 나가고 싶어서 힘들다.	3.88
	65. 커서 학력 때문에 차별 당할까봐 걱정이다.	3.75
69. 아침에 갈 곳이 없어 힘들다.	2.50	
2	범주 2. 내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3.18
	3. 막 나쁜 짓 하게 된다.	3.00
	22. 커서 안 좋은 사람이 될 거 같다.	3.50
	37. 사람들이 무시해서 싫다.	3.50
	39.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다.	3.38
	45.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건디기 힘들다.	2.38
	54. 친구들이 줄어들어 힘들다.	2.63
68. 말썽 많이 부리게 된다.	3.88	
3	범주 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	3.72
	12. 엄마한테 미안하다.	4.75
	35. 사람들이 부모님 욕하는 게 싫다.	4.50
	52. 어른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과 다르게 본다.	3.88
	55. 집에서 대우하는 게 달라졌다.	2.88
	56. 용돈이 줄어들었다.	3.13
	60. 엄마가 뭐라 하면 화가 난다.	3.38
62. 같은 잘못을 해도 학교 다니는 애들은 봐준다.	3.38	
64. 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하나라도 더 준다.	3.88	
4	범주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	3.88
	40.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봐서 싫다.	3.88
	42. 부모님 잔소리가 심해졌다.	3.13
	43. 학교도 안 다니는 게 어찌고하는 말이 싫다.	4.25
	44. 빈둥댄다고 할 때 싫다.	4.00
	51. 어른들이 안 좋게 보아서 짜증난다.	4.25
	53. 차별대우해서 기분 나쁘다.	4.13
	59. 엄마한테 욕먹어서 싫다.	3.13
	61. 경찰도 차별해서 벌을 더 주는 게 싫다.	4.25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생활경험 비교 연구 : 정규학교 중단 후 힘든 점을 중심으로

그 룹	문 장	평정치 (평균)
5	범주 5.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힘들다.	2.72
	4. 가출을 쉽게 하게 된다.	3.50
	8. 너무 많이 놀아서 힘들다.	2.50
	19. 그냥 마음이 힘들다.	3.38
	32. 학교시간에 애들이 나를 볼 때 싫다.	2.38
	38. 시간개념이 없어서 불편하다.	3.00
	41. 놀 사람이 없어서 짜증난다.	2.13
	47. 아침만 되면 짜증이 난다.	3.13
	49. 자꾸 말을 하고 싶다.	2.88
	57. 수련회 같은 게 없어서 싫다.	2.13
	58. 친구들과 놀러 가들게 줄여서 힘들다.	2.25
63. 복학하겠다고 해도 믿지 않아서 힘들다.	2.63	
6	범주 6. 학교를 안 다니니 시간이 많이 남아 힘들다.	2.63
	7. 밤과 낮이 바뀌었다.	3.50
	9. 등교하는 애들 보는 게 힘들다.	2.88
	10. 교복 입은 애들 보는 게 힘들다.	2.63
	21. 노는 게 지겹다.	2.13
	30.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면 쪽팔린다.	2.13
	34.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학교 안 다니니까 말할 수 없어 힘들다.	2.00
	74.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3.13
7	범주 7.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클 것 같아 후회된다.	3.52
	5. 돈이 금방 떨어진다.	3.75
	6. 돈을 얻기 위해 나쁜 짓을 하게 된다.	2.88
	15. 학교 못 다니는 게 아쉽다.	3.63
	18.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부럽다.	2.63
	23. 졸업장이 없는 게 걱정이다.	3.25
	24. 취직이 안 될까봐 걱정이다.	3.38
	28. 사람들이 불쌍스럽게 봐서 싫다.	3.88
	29. 사람들의 시선이 짜증난다.	3.00
	36. 학교 안 다닌다고 불쌍하다고 할 때 열 받는다.	4.50
50. 학교 안 다닌다면 어른들이 나쁘게 본다.	4.25	
8	범주 8. 또래 학생들과 달라진 내 상황이 싫다.	2.99
	11. 공공장소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마주 치는 게 싫다.	1.75
	16.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서 힘들다.	3.38
	17. 교복입고 싶다.	3.75
	25. 아침에 나가면 애들이 없는 게 싫다.	2.50
	26. 나만 갈 곳이 없어서 짜증난다.	2.13
	31.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부끄럽다.	2.25
	33.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기 짜증난다.	2.13
	48. 짜증이 많아졌다.	3.75
	66. 고졸은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4.00
	67. 학교 그만둔 것이 후회된다.	4.25
	70. 심심하다.	2.50
	71.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3.00
72. 학교 다니는 애들과고 생활하는 게 달라서 싫다.	3.13	
73. 너무 빈둥빈둥 대서 싫다.	3.38	

개념도 [그림 III-2]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번 범주('내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외에는 모든 범주들이 큰 간격의 차이가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방사형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리 청소년들의 경우 특별한 유형 없이 다양한 고민들이 병렬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혹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주의 변화가 개념도상에 이 같은 원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거리 청소년의 경우 범주 간에 그런 시간상 규칙성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거리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과 관련한 고통이 심리내적으로 두드러지게 유형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부분에서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중단 청소년의 힘든 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후 각각의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1.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

학교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무조건 학교에서 사고를 친 문제아나 나쁜 아이들이라고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다. 학교중단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외국인 노동자나 그들의 가족이 받는 차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자신과 다른 것, 남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학교중단 청소년이 차별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부모, 형제, 교사는 물론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중단으로 인한 선생님, 친구로부터의 관계단절을 힘든 점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비록 직업전문학교 등의 새로운 학교에 소속되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더라도 여전히 이전의 사회적 관계망이 이들의 적응과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일부 계속 유지시킴과 동시에 정규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이 정규학교 중단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가와 지역사회 조력자들은 다양한 대체 지지망을 확보하고 개발해 나가는 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셋째, 생활영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중단으로 인한 부모님, 가족, 친척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갈등이나 미안함 등으로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친척들과 어울리는 친척모임에도 잘 가지 않게 되고 친척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된다. 지역사회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또래와 더불어 청소년의 주된 사회적 지지망이 가족과 친척임을 고려해 볼 때 가족과 친척으로부터의 분리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이 박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들을 사회적 지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척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중단 청소년은 자신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홀가분해 하는 동시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이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였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었던 시기에 자신이 수립한 계획도 잘 수행해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어른들의 냉랭한 반응으로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정말 끝이라는 절박감에 힘들어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생활하는데 중요한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러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학생 아닌 청소년’으로서 학생들이 받는 다양한 혜택 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청소년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다양한 상황에서 학교중단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직업전문학교 학생증, 청소년증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학생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을 사용할 경우 사람들이 ‘학교 안 다니는 애’라고 인식하는 것이 두려워 청소년증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생증 등 다른 증명도구가 없을 경우에만 청소년증을 발급·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청소년 증 사용=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증을 폐지하고 신분증명서로서 청소년증을 단일화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방향성 상실로 인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심리·정서적 어려움에도 일부 나타나지만 이 어려움이 학교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지원, 홍보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로움, 소외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의 상실로 인한 막막함과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보여주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직업 전문학교 청소년이 거리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숙고과정이 없는 거리 청소년에 비해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보다는 대학진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청소년기의 진로와 방향성에 대한 몰이해는 대학 진학 후 시작된 뒤늦은 고민으로 다양한 편입, 전과 등의 진로수정을 초래하고 이러한 진로수정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시기의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진로, 자신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 하겠다. 단, 이러한 방향성의 상실과 막막함, 불안감이 지속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차원에서 다양한 진로·생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중단 청소년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사회 지지의

부족이다. 획일적이기는 하나 학교체계 안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받는 학교 청소년에 비해 모든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일단 무장 해제된 학교중단 청소년은 이전에 받던 모든 사회적 지지에서 소외되고 있다. 학습과 관련한 생활지도는 물론, 상담, 훈육, 급식, 진로지도에 이르기까지 학교제도에서 지원되던 모든 지원은 학교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단절된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학교중단 청소년은 모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학교 밖을 나온 청소년에게는 학교를 대체할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주기는 커녕 가족갈등, 무관심, 편견, '학교중단 청소년=문제 청소년'이라는 낙인 등으로 있던 지원마저 중단시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가족, (정규)학교, 대안·직업전문학교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지지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차별적 어려움

다음에서는 학교중단 청소년의 생활영역별로 특징적 어려움을 살펴보겠다.

우선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혹은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의 추천으로 직업훈련과정에 들어왔다는 점,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고 있으며 비교적 엄격한 학사관리로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여유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연령이 다른 생활영역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방황과 목표 상실, 가족 간의 갈등 시기를 지나 학교밖 청소년으로서의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대상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 중 많은 수는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온 후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으며 주말에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서로 챙겨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생활영역의 청소년처럼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편견, 어른들의 무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신에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와 미래와 관련한 도움의 부족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힘들어하는 영역에 대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직업훈련이 끝나는 대로 사

회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학력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와 '범주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잘 반영한다.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산업체 근무 경험을 하고 이미 산업체에 취업한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력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 취업을 위해 회사 면접을 볼 때에도 자퇴한 사실 때문에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아르바이트 하는 데에도 학력을 따진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고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이른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다.

둘째, 직업훈련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몇몇 직업훈련 시스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직업전문학교 시스템의 한계점으로 첫째로 '문항 16.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설비와 실습장비가 필요한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전공을 개설할 경우 이에 따른 설비구입 비용 증가와 관련교사의 추가 채용 문제 등이 발생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 직업전문학교는 기계와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20여개 분야 50여개 직종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고 입학기준이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지역 직업전문학교에만 있는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의 경우 입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IT, 예술, 항공, 관광 등 비교적 다양한 전공을 갖추고 있는 사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도 서울에 위치한 1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세에서 60세까지의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청소년의 비율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21.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수시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입학기간을 놓치면 긴 경우 1년까지 입학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입학연령을 취업이 가능한 연령에 한정하고 있어 연령이 미달하는 경우 입학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경우 사설 학원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사설 학원의 엄청난 교육비용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우

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학교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교중단 후 부모로부터 용돈지원조차 줄어들었다고 하는 상황이라 정규학교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사설 학원비를 충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의 전공과 입학시기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국가운영 직업전문학교의 입학가능 인원을 확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성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경우 청소년기의 독특한 발달적 특성을 간과하고 자칫 이들이 주된 교육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청소년 전용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 한계점은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은 성별로 인한 추가적 차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 여자들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좋아하는 전공을 찾기 어렵다.'와 '28. 기술을 배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이 처한 이중고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인터뷰를 실시한 청소년 중 단 1명만이 여자 청소년이었다. 기계, 항공, 자동차 정비 등을 주로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여자 청소년이 원하는 직종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기계, 항공, 자동차 정비 등 기존의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희망하여 직업전문학교에 진학·졸업한 여자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의 특성상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취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성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관련 전공 개발이 시급하다. 네 번째 한계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검정고시를 주로 하는 대안학교 청소년과 달리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정규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2006년 3월 10일자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졸업학력인정시험이 폐지되었고, 출석 수업 일수 24일 이상을 채우고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이 공부보다는 졸업장 따는 것에 치중한다(M=4.00).'는데 비교적 높게 동의하고 있었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학교가 싫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떠난 청소년과 달리 이러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여전히 학문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며,

기회가 되면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한 이후에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바램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행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를 급격하게 재구성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보충·심화 학습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지역사회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연계하여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한계점은 직업전문학교 수용가능인원에 관한 사항이다. 인터뷰 대상 청소년들은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면접에 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다.'고,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떨어질까봐 눈치지원한다.'고 하여 직업전문학교가 원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실질적인 재정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직업전문학교 수용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청소년에게 있어 직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직업전문학교 인원 증대, 사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청소년 직업훈련시 국가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직업훈련을 원하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주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M=3.79).'는 점을 매우 중요한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려웠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학교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도 기숙사가 없고 집이 멀면 다닐 수 없다고 하여 거리상의 근접성, 기숙사 시설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기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M=4.61).'고 한 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중단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교중단 청소년이 무기력하고 목표의식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기존의 부정적 시각을 뒤엎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거리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유형별 범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에 비해 커다란 어려움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M=3.77).'와 '범주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M=3.88).'를 제외하고는 거리 청소년의 문제

에 대한 지각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학교중단 청소년이 학교 중단 후 자유를 만끽하는 기간을 거쳐 고민과 방황의 기간 후 적응 혹은 비행후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거리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인 학교 중단후 자유를 만끽하는 기간에 속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거리 청소년의 학교중단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도 이런 측면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거리 청소년의 문제 인식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청소년에 비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가진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은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해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아무 준비나 지원 없이 학교 밖으로 청소년을 내모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상의 문제로 청소년이 그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학교중단 청소년기를 독특한 발달 단계 중 하나로 간주할 경우 거리 청소년기는 비교적 초기에 속하며 이 시기는 학교중단 청소년이 복교를 선택할지,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할지, 대안학교로의 진로를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은 비록 조그만 조치일지라도 추후 학교밖 생활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거리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리 청소년의 경우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달리 사회적 지지로부터의 고립과 이로 인한 박탈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이들은 자신의 목표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학교에서 학교중단 청소년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나 사전지식 없이 즉흥적으로 학교중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방황과 목표상실을 통한 적응기로 가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일 수 있다. 단, 이러한 시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거리 청소년은 대안학교 청소년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까지 그 어려움이 심화되어 나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그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즐거워하는 동시에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 질까봐 걱정하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과 학력 때문에 받게 될지 모르는 차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말썽을 많이 부리게 되며(M=3.88)' 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찰조차 학교 청소년과 학교중단 청소년을 차별하여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벌을 더 주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가출을 자주 하게 되며 밤과 낮이 바뀌고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거리 청소년의 특성은 뚜렷하지 않지만 다른 학교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가족적 어려움과 문제요소를 골고루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이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제한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 중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학업중단 청소년 전반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에 다양한 학교중단 청소년 유형별 비교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적 연구법과 질적 연구법을 보완한 개념도 연구법의 특성상 분석내용의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질적 연구법으로 얻을 수 있는 조사대상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심층면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첫째,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학교중단 청소년이 처한 생활영역별로 차별화된 정책개입 방안 도출이 필요함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특히 이제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차후 이들을 위한 정책적·서비스적 개입방안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장점을 절충한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함으로써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학교중단 청소년 뿐 아니라 연구대상과의 접근이 어려운 다른 소수인구집단들의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중단 청소년=문제 청소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학교중단 청소년의 상황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 참 고 문 헌

- 강성국(2005). 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명자·주영아·김태성·이자영·김상수·신현수(2005). 학교밖청소년 지원모형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기태·류기형·최송식·홍봉선·남미애(1996).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중퇴생의 생활과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연구, 6, pp. 165-198.
- 김순규(2004). 가족환경 요인이 청소년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pp. 43-63.
- 김찬호(2004).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사회적 과제: 한국의 소수자, 전망과 실태.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pp. 213-242.
- 박창남·임성택·전경숙·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 대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소영(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남상인·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정찬석(2005). 청소년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측면 탐색연구 -개념도 방법론을 통한 상담자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2004).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과 이해. 2004 청소년상담심포지움 자료집, pp. 9-41.
- Dorn, R. A., Bowen, G. L., and Blau, J. R.(2006). The impact of community diversity and consolidated inequality on dropping out of high school. *Family Relations*, 55, pp. 105-118.
- Entwisle, D. R., Alexander, K. L., and Olson, L. S.(2004). Temporary as compared to permanent high school dropout. *Social Forces*, Vol. 82 No. 3, pp. 1181-1205.
- Giorgi, A.(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12-18). Philadelphia :

Duquesne University Press.

- Janosz, M., LePlac, M., Boulerice, B., and Tremblay, R. E.(1997). Disentangling the weight of school dropout predictors: A test on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6 No. 6, pp. 733-762.
- Paulson, B. L., Truscott, D., and Stuart, J.(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ling.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6, pp. 317-324.
- Trochim, W.(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In W. Trochim(Ed), *A Special Issue of Educ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pp. 1-16.
- Trochim, W.(1993). Reliability of Concept Mapp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Dallas: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 연합신문 2006. 9. 22일자 기사: 학업이탈 초·중·고생 지난해 5만5천명.
- 전남일보 2006. 9. 23일자 기사: 민병두 의원 국감자료-학업이탈 초·중·고생 지난해 5만5천명 매년 감소 추세.
- EPE-RC: The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Research Center Homepage(2006). <http://www.edweek.org/dc>(검색일 : 2006. 10. 15).

## ABSTRACT

### Comparative Study on Life Experiences of Young Vocational School Youths and Street Youths : Focusing on the Difficulties the Youths Experience Post Dropout

Seo, Jeong-A \* · Kweon, Hae-Soo\*\* · Jung, Chan-Suk\*\*\*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life experiences of young vocational school youths and street youths to identify differentiated support to provide youth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made in defining the concept of street youths and understand their types, based on which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iculties they have suffered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In this study, we used the concept mapping research method, which complements the weaknesse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to examine 21 young vocational school youths and 10 street youth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re analyzed using Concept Systems Program Version 4.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young vocational school youths are divided into 14 categories, which are placed in the order of their predominance: 'having disadvantageous surroundings,' 'having limitation in their vocational training system,'

---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PSI Consulting (formerly,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nd ‘actually unaware of how to receive help and are unable to receive sufficient help when otherwise available.’

Second,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street youths are classified into eight categories and placed in this order: ‘getting very angry because people regard me as a bad youth,’ ‘parents and other adults began treating me differently after I dropped out of school,’ ‘feeling fearful of possible disadvantages I will suffer in terms of economy and status’ and ‘experiencing psychological conflict whenever I want to play and, at the same time, have to go to school.’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ve discussions:

First, the difficulties commonly encountered by school dropouts include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eing severed from teachers and friends after dropping out, discomfort in relations with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lemmas brought about by dropping out of school, exclusion from various privileges offered to ‘students,’ disappointment an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due to the loss of goals in life, and lack of social support.

Second, in terms of living spheres, vocational school youths suffer obstacles to future academic achievements, inherent limits i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and disadvantageous surroundings, whereas street youths encounter difficulties for neglecting the seriousness of dropping out of school and of the subsequent severe social prejudice.

Finally, we present alternative policies that can be individually or commonly offered to street youths.

**Key Words** : school dropout, vocational school youth, street youth, difficulties, concept mapping

투고일 : 3월 30일, 심사일 : 4월 30일, 심사완료일 : 5월 18일